

“적폐청산”으로 되살아난 6월 항쟁의 외침

광주 5·18 광장서 30주년 기념식...윤장현 시장 등 3천여명 참석

민주대행진 재연·다큐 방영 등 행사 다채...이달까지 사진전·토론회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부르짖었던 30년 전 6월 항쟁의 열띤 목소리가 “적폐청산, 사드철폐”로 되살아났다. 광주시민들은 10일 광주시 남구 서현교회에서 동구 5·18민주광장까지 “적폐청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1987년 6월의 민주대행진을 재연했다.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일 5·18 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서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 앞 서울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고, 여수·목포 등지에서도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6월 민주주의 꽃이 피다’를 주제로 6·10민주항쟁 30주년 광주·전남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천정배·송기석 국회의원, 시민 등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기념식에 앞서 서현교회 앞에서 5·18민주광장까지 민주대행진을 벌였다. 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6월항쟁 당시 외쳤던 “호헌철폐, 독재타도”와 함께 “적폐청산, 사드철폐”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구호도 외쳤다. 또 행사위가 제작한 ‘민주주의 꽃이 피다’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했다.

올 여름 ‘찜통 수업’ 사라지나

전남교육청 추경 에어컨 전기료 지원금 21억원 확보

올 해 전남지역 각급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보다 시원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학교 전기요금에 인하된다. 학교별 전기요금 지원금도 늘어나면서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2017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기요금 지원금 21억4500만원을 추가로 확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여름 찜통교실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금의 경우 학교별로 ▲초등 428개교 9억1500만원 ▲중등 249개교 4억5500만원 ▲고등 143개교 6억2900만원 ▲특수학교 8개교 4300만원 등이다. 전남교육청은 또 412개 유치원에도 1억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다.

이 때문에 전남 각급 학교들 사이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도 ‘폭탄 요금’에 대한 우려로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던 안절부절했던 지난해와 달리, 전기요금 걱정을 덜게됐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 논란을 풀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한 것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키로 했었다. 20% 가량의 전기요금 할인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1차 수색 17일 완료

11일만에 3층서 유골 1점 수습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1차 수색 작업이 17일 완료된다. 이어 손길이 닿지 못한 객실 정밀수색은 이달말까지 끝내고, 7~8월 두달간 화물칸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객실 1차 수색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객실 3층과 5층 1차 수색을 17일까지 매듭짓고, 이번달까지 손길이 닿지 못한 부분을 2차로 정밀하게 수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7월부터 1~2층 화물칸 수색에 들어가, 늦어도 8월말까지 미수습자 수색을 완료할 방침이다.

수습본부는 전날인 10일 목표신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6월 말 객실 수색 완료, 8월 말 선체 수색 마무리라는 일정을 보고했다.

현재 3~5층 객실 총 44개 수색구역 가운데 36곳에서 작업을 마쳤다. 단원과 학생 객실이 있던 4층은 수색을 완료했고, 3층 중앙 5곳과 5층 중앙 3곳 등 총 8곳에 대해 수색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세월호 3층 중앙 주방(3-8구역)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3층 선미 좌현(3-18)에서 사람뼈 1점이 발견된 이후 11일 만이었다.

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상업용 첫 퇴출...40년간 전력 생산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58만7000kW급)의 영구정지가 18일 24시(19일 00시)로 확정됐다. 국내 상업용 원전의 영구정지는 이번이 첫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의 최종 의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8일 24시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를 냉각한 뒤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구정지 직후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조로 전량 옮겨져 보관된다. 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심사에서 고리 1호기의 저장조 냉각계통을 다른 호기처럼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원안위는 이 문제를 보완할 때까지 가동 원전에 준해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국내 원전의 ‘만행’이다. 설계수명(30년)은 지난 2007년 만료됐지만, 수명이 10년 더 연장돼 모두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그리운 '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은뒤 흐림	17/27	보성	맑은뒤 흐림	15/24
목포	맑은뒤 흐림	18/25	순천	맑은뒤 흐림	17/25
여수	맑은뒤 흐림	17/23	영광	맑은뒤 흐림	15/26
나주	맑은뒤 흐림	15/27	진도	맑은뒤 흐림	16/25
완도	맑은뒤 흐림	17/23	전주	맑은뒤 흐림	17/27
구례	맑은뒤 흐림	14/26	군산	맑은뒤 흐림	16/26
강진	맑은뒤 흐림	16/25	남원	맑은뒤 흐림	15/26
해남	맑은뒤 흐림	16/25	홍산도	맑은뒤 흐림	16/23
장성	맑은뒤 흐림	14/26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	동~남동	0.5
	먼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먼바다(동)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남해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먼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09:10	03:58	21:03	15:49
	04:38	10:29	16:25	23:04

◇ 주간 날씨

날짜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날씨	☀	☀	☀	☀	☀	☀	☀
시각	14/24	17/27	16/29	17/30	18/30	19/30	19/30

해돋이 05:17, 해질 19:47, 달돋이 21:47, 달질 02:27



◇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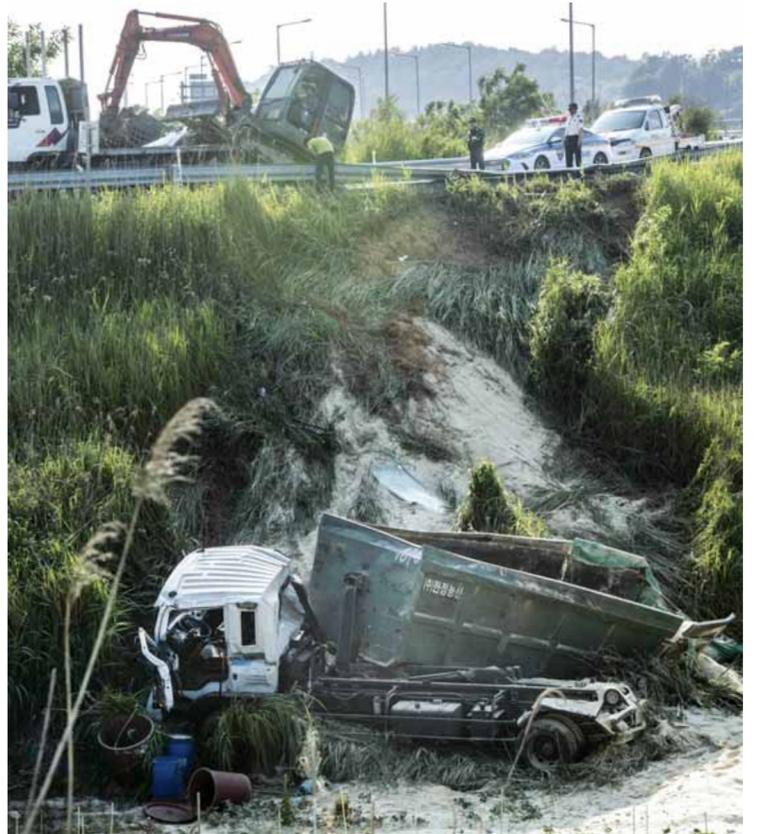
의 꽃이 피다’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했다. 기념식은 행사위 상임위원장이 남재희 신부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이례, 김상집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이홍길 교수(상임행사위원장)의 기념사, 윤 시장과 김 지사 권한대행의 축사, 사드 등 현안보고, 30주년 선언문 채택, 만세삼창,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항쟁 당시 목숨 건 단식농성을 주도했던 남재희 신부는 개회사를 통해 “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열사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이 6월 항쟁을 만들었다”며 “그 때의 정신은 2017년 촛불혁명으로 완성됐으며, 이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항쟁 30주년을 맞아 그날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정의와 원칙에 기초한,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와 활짝 피어나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기념식에서는 행사위가 SNS(사회관계서비스망) 등을 통해 모집한 1987명의 시·도민 추진위원들이 작성한 ‘6·10민주항쟁 시국선언문’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 이후 이어진 문화제를 즐기며 6월항쟁 정신을 기렸다.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 행사위는 오는 30일까지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사진전시회를 열고, 7월26일부터 8월18일까지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기획전시전을 선보인다. 행사위는 또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기술채록 사업과 6월항쟁 3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6월 이야기 수집·정리, 6월항쟁 표식 설치, 30주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화물차 15m 추락 지난 9일 오후 5시에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왕곡교차로 광주에서 영암 방면으로 향하던 5t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해 15m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사료 원료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커브길을 돌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김진수기자 jeans@

